



제 38회

평신도주간

2016. 6. 5

평신도 기도주간

5.30(월) ~ 6.4(토)

5.30(월) 영혼 구원

5.31(화) 치유

6. 1 (수) 영적 승리

6. 2 (목) 사회 성화

6. 3 (금) 거룩한 교회

6. 4 (토) 원수 사랑

오늘의 **희망**
내일의 **희망**

제38회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I. 평신도주일에 즈음하여 _안승철 감독	2
II. 평신도주일의 의의 _송윤면 목사	4
III. 설교자료	
1. 혁신적 평신도 갱신운동 _최진화 목사	6
2.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 _곽주환 목사	12
IV. 예배자료	
1. 평신도 기도주간 묵상문 _이대희 목사	17
2. 예배문	24
V.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행사자료	26
VI. 평신도 재능기부 운동	29
VII. 생명나눔 운동	33
VIII. 감리교회 착한소비 3·6·5 운동	38
IX. 교인생활수칙	44
X. 첨부자료	45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안승철 감독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신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안전한 길이 필요한 대한민국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불편함이 가득합니다. 외형만 커진 한국교회는 점점 침체되는데 이단들은 활개를 치고 있어 오늘도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기업도 열심히 하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제말씀의 주인공 예레미야는 나라가 암울하고 삶의 미래가 없고 세상이 심각하게 무너져가는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에 속아 편안하다는 착각에 빠져 멸망해 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솟아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희망의 약속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평신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사회에 어둠이 깊었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세 가지를 실천하며 은혜 받은 평신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첫째 찬양꾼입니다. 웨슬리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은 2마일, 설교는 1마일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찬양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뜻을 음미하며 마음을 담아 열창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꾼입니다. 은혜 받은 평신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1735년 1월에 웨슬리 목사님은 “통성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방법을 알지 못한다. 통성기도에 견줄만한 다른 은혜의 방편은 없다”며 통성기도 운동을 합니다. 또 가는 곳마다 새벽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평신도는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는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감리회의 것입니다.

셋째, 간증 전도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집회할 때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간증을 하게 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잡된 말을 입에 담지 말고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교리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은혜를 말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간증이 전도가 됩니다. 영혼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웨슬리를 통해 심각한 상황인 지금 평신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찬양꾼, 기도꾼, 간증 전도꾼이 됩시다. 사랑하는 감리회 평신도 모두가 웨슬리의 세 가지 실천사항을 지켜나가면 다시 한 번 이 땅에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마음에 새기고 믿으면서, 힘차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희망의 기쁨으로 늘 함께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

송윤면 목사
사회평신도국 총무 직무대리



2016년 제38회 평신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5,800 교회와 150만 감리교인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사회평신도국의 정책과 사업을 위해 협력해 주시는 연회 감독님, 감리사님, 목사님, 그리고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신도주일은 1979년 3월 총회 결의에 따라 매년 6월 첫째 주일과 그 한 주간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으며, 올해로 제38회 평신도주일(6월5일)을 맞이합니다.

감리회 교회력에 평신도주일을 두고 이를 지키도록 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6월 첫째주일을 평신도주일로 지키게 한 것은 평신도들이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진정한 감리교회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 가는 데 있습니다.

2016년 제38회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에는 평신도 주간 성구와 기도문 그리고 예배문과 평신도주일 성수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평신도주일 기간인 5월 30일(월)~6월 4일(토)은 ‘평신도 기도주간’으로 지켜주시고, 6월 5일(주일)은 평신도들이 주관하는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150만 평신도가 그리스도 제자로서 선교와 전도, 교육과 봉사의 사명과 역할을 깨닫고, 결단하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 칭찬 받는 평신도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해 협력해 주시는 연회 감독님, 지방 감리사님,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사회평신도부 총무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혁신적 평신도 갱신운동

로마서 12:1,2

최진화 목사

삼남연회 한려지방 물건리교회 담임



존 스토틀 목사의 「제자도 The Radical Disciple」라는 책이 있다. 책의 제목을 직역하자면 ‘급진적 제자’이다. 급진적인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묻고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다. “제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사실 제자는 모두 급진적일 수밖에 없다. 스토틀 목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서 철저하게 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온전히 살아야 하는데, 많은 영역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38회 평신도주일을 맞으며 우리는 제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CEO가 아니라 교회 평신도 지도자였다면 아마 그는 교회를 바꾸는 데 동의했을 것이다. 교회뿐 아니라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힘으로 세상까지 바꾸려 했을 것이다. 잡스의 여러 어록 가운데 주목할 말이 있다.

“남은 인생을 설탕물을 팔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는 분명 세상 바꾸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다. 세상을 바꾸려면 ‘다르게 생각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창조적 혁신만이 세상을 바꿀 힘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세상을 바꾼다’는 소명에 모든 것을 걸었다. 8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유산을 남겼지만 돈도 중요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최고 부자가 되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 내게는 그것이 중요하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 ‘다르게 사는’ 대가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대의 감리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잡스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한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다르게 생각하며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에게, 감리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자인 당신은 오늘 잠자리에 들 때 ‘놀라운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예수의 제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제자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다르게’ 산다는 뜻이다. 예수님 자신이 ‘다르게’ 사셨다. 문제는 세상이 다르게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다르게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이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진리를 따라 ‘다르게’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산다는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반대일 경우가 많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것이고,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것이며, 싸워서 이기기보다 저주는 것이며, 나의 권리를 쟁취하기보다 양보하는 것이다.

스토트 목사는 결국 성경은 두 동산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고 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 자기의 의지를 관철한 에덴동산과 자기의 의지를 접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다. 우리는 모두 진정한 제자, 온전한 제자, 성숙한 제자로 자라야 한다. 스토티 목사의 표현대로 하자면 급진적인 제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 전적인 헌신을 기대한다. 주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철저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래디컬 Radical’은 바로 ‘기독교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불편은 무엇이며 기꺼이 감당하는 손해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가늠해 보는 질문이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 많은 영역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데까지 자라야 한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르게’ 살아간다는 말이다.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다르고, 가정에서 행동하는 것도 다르며, 돈 씀씀이도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고, 인생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려면 우리에게 남다른 큰 확신(Great Conviction) 다섯 가지가 있어야 한다.(살전 1:5)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다(엡 2:8). 둘째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다(마 1:23). 셋째는 기도응답의 확신이다(눅 11:9~13). 넷째는 천국소망의 확신이다(고전 15:19). 다섯째는 사회변혁의 확신이다.(롬 12:2)

누구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미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명을 지니게 된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함께 배우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실험하고, 세상에서 다르게 살도록 격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회나 선교회 등 각종 모임에 모이자는 것이다. 그런 영적 사귀이 있어야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

자랑스러운 평신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인가? 제자가 되고 제자로 자라고 제자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마음에 위로나 받고, 인생의 위기에서 힘을 얻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는가? 아니면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그로 인해 이런저런 불편을 겪고,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어 상처 받은 적이 있는가?

기억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제자로서 꾸준히 자라가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 평신도들이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겸허하고도 철저한 자기개혁을 통해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정치·경제·사회의 각 영역 속으로 들어가 변혁의 삶을 사는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선교 2세기를 향하며 복음의 침체기를 벗어나야 한다. 성장과 새로워지는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18세기 영국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했던 존 웨슬리의 갱신운동(Renewal Movement)을 되돌아보게 된다. 존 웨슬리의 갱신운동은 당시 참으로 무기력해진 영국 교회를 부흥시켰을 뿐 아니라 각 방면에 새로워지는 혁신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신약성서에 뿌리를 두게 이끌었고 자신의 조직적인 재능을 쏟아 부으면서 혁신적인 제자양육을 하였다.

세계적인 교회갱신학자인 H.A. 스나이더는 “웨슬리에 의하면 혁신을 위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전통에 대한 존중과 아울러 새롭게 하는 혁신적 기독교인(Radical Christian)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소그룹별로 새롭게 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제자직 훈련을 해야 하고, 메도디스트가 큰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Ecclesiolae in Ecclesia)로서 새롭게 하는 사명을 다해야 하며 교회는 성결의 누룩(Leaven of Holiness)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존 웨슬리는 분명히 혁신적인 기독교인이었다. 웨슬리는 오늘날 혁신적인 기독교인이 강조하기 시작한 바로 그것을 알았다.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혁신적 기독교요, 감리교회이다. 우리가 20세기 동안의 체험에서 믿는 가장 뚜렷한 교훈 중 하나는 교회는 항상 성서적이고 영적인 뿌리로 돌아갈 때 가장 충실했다는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교회는 새로워져서 그 시대의 영적인 위기나 사회·경제적 위기에 도전하는 데 가장 창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혁신적 웨슬리 The radical Wesley’이다!

부디, 감리교회와 우리 평신도들이 ‘혁신적 웨슬리를 본받아’ 제자로 자라는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기도한다. ‘희망을 노래하는 감리교회’가 되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

예레미야 29:11

곽주환 목사

서울남연회 구로지방 베다니교회 담임



시대의 아픔이 있다면 희망이 점점 사라져간다는 것이다. 지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경쟁을 통해서 고속성장을 해 왔다. 예전보다 잘살게 되었지만 다 행복해진 것은 아니다. 성공한 사람은 인생이 피곤하게 되었고, 패배한 사람은 실패의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 소망이 있어야 살고 싶은 의욕도 있고, 상처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까? 믿음직한 사람들, 사랑이 많은 따뜻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이 모두가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한 박해가 있었다. 주권을 빼앗긴 아픔이 있었다. 주변을 돌아봐도 어디에서 소망을 품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3:15)” 말씀하셨다. 곧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로 “당신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라는 질문에 답할 준비를 갖추라는 말씀이다.

이 시대는 희망을 잃어버렸다. 스스로 삶을 비관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서울의 마포대교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막아보려는 자살 방지문구가 눈길을 끈다. 얼마나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마음을 돌려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권을 빼앗기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시기였다. 주권을 빼앗긴 아픔, 우리나라가 일본에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과 재산을 아끼지 않았다. 희망이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서 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에 대한 신뢰가 소망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된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천국을 누가 보았는가? 천국에 다녀온 자가 증언이라도 했는가?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에 그것이 바로 소망의 근거가 된다.

나라를 빼앗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렘 29:10).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로 소망의 근거가 된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가? N포 세대, 처음에서는 삼포, 오포 세대 하다가 포기할 것이 많아서 이제는 N포 세대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소망이 없으면 포기하게 된다.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다. 소망이 있어야 살아간다.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니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서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에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안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 스스로 포기하면서 살아가는가?

한국에 와 있는 유럽 외교관이 한국의 인상에 대해서 말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그는 대뜸 “한국 사람들이 무섭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자살해 버린다”면서 한국 사람들을 ‘성질 급한 생선’에 비유했다. 우호적인 대담을 기대했는데 성질 급한 생선이란 말까지 듣자 다소 불쾌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음이 소망의 뿌리가 된다면, 소망은 믿음의 열매가 될 것이다.

한 병원의 중환자실에 심한 화상을 입은 침대 소년이 있었다. 이 소년이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중환자들은 면회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원봉사자 대학생이 우연히 이 병실에 들어오게 되었다. 병원 규정을 잘 몰랐던 대학생은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소년에게 중학교 수준의 문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는 며칠 간 봉사활동을 열심히 계속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의사들까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는데 소년의 상태가 극적으로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이 물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거니?” 소년이 대답하였다. “한 대학생 형이 와서 다음 학기에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가르쳐주었어요. 난 생각했어요. ‘아, 의사선생님이 내가 나을 거라고 했나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형이 다음 학기 공부를 가르쳐주겠어?’ 그때부터 몸이 가벼워졌어요.” 자신이 회복되어서 이제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몸을 회복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우리 안에 얼마나 강력한 소망이 생기겠는가?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희망을 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리더십 leadership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다. 지도력이라는 의미이다.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존 맥스웰은 리더십을 ‘영향력’이라 정의하였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면 지도력이 없는 사람이다.

지도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지도력이란 곧 영향력이다. 특히 평신도지도력

이 필요한 시대이다. 목회자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거나 교인들이다. 그렇지만 평신도는 다양한 사회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그러기에 평신도 지도력이 중요하다. 평신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

내 주변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우리 모두 희망의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음을 분명히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는 완전한 절망이다. 포기 상태이다.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비참하게 숨을 거두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만 있는 것도 아니다. 고통의 십자가가 있었지만, 기쁨의 부활이 있었다. 십자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 예수에게 부활이 있다.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나이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나에게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소망의 뿌리가 된다.

우리 주변에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변을 세밀하게 살펴서 그들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가? 함께 기도하며 한 생명을 살려보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 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절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이다.

1. 평신도 기도주간 묵상문

[평신도 기도주간 : 5월 30일(월)~ 6월 4일(토)]

이대희 목사

동부연회 강릉북지방 강릉선교교회 담임



‘말씀과 기도’로 평신도주일(6월 5일)을 기다립시다.

새벽이나 밤중에 고요한 성전에 올라가 주님과 대화하면 참으로 좋습니다.

하루 중 시간을 정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면서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2016년 평신도 주간 묵상문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영적 여정과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모세의 광야 간구, 기드온의 언약 기도, 에스더의 금식 청원, 바울의 목회 기도, 예수님의 다락방 기도를 통해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주제를 매일 나눕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5.30

월요일

영혼 구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창세기 18:32)

여호와와의 문으로 들어가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터에서 베풀어
주신 평강의 풍성함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 마음이 번성한 종려나무
와 같고 성장한 백향목과 같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권세로 돌보시고
지키시는 구원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망의 문으로 행진하는
이들을 어찌 하시렵니까? 끝 모르는 지옥의 불구덩이, 참혹한 멸망에 사로잡
힌 이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들이 흑암과 음부의 권세, 불못에서 놓임 받아 지체하지 않고 구원의 십
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고 돌이켜서 의의 길, 생
명의 길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형벌 받은 것은
의인이 없기 때문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 주셔서 마귀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거
룩한 빛을 비추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민수기 12:13)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완전하며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 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주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구합니다. 눈물이 없고 사망과 애통이 없으며 아픔과 슬픔이 다시 없는 평강의 예루살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탐욕의 깊은 유혹에 빠지는 우리를, 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넘치도록 있으면서도 빼앗고 속이고 채우려하는 시기심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소서. 육신이 썩고 부패하여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악취가 진동하는 죽음 앞에서 방황하는 바알의 후손들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대의사이신 주님께 부르짖으니 병든 이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셔서 고치고 낫게 하옵소서. 다리를 저는 이들이 걷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이 말하게 하소서. 암과 골수의 질환과 뇌혈관의 막힘과 오장육부의 무질서함으로 인해 절망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산 소망을 허락하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부부들의 원통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생명의 창조를 허락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1

수요일

영적 승리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 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사사기 6:15)

하늘 구름과 바다의 샘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심으로 땅의 소산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우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주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벼락이 큰 소리를 내며 번개가 빛을 발하면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이 크게 뛰놀면 다리의 힘이 풀리고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합니다. 미디안의 강한 군대가 병거와 마병으로 주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침략하면 피할 곳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원수들은 주의 백성들을 정죄하며 송사합니다. 마귀들은 주의 자녀들을 멸시하며 비참하게 구덩이로 끌고 갑니다.

오, 주여! 우리는 극히 약하고 어리며 작고 작은 벌레와 같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신령한 뜻을 따를 만한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샘가에 견고히 서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진리의 횃불로 어둠을 물리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큰 용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

목요일

사회 성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에스더 4:16)

생각과 행하시는 그 길이 우리 보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경영과 계획하심이 신묘막측(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 하시고 대대로 영화로우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열방과 민족과 군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 받으옵소서.

빛의 광명함으로 가장한 옛 원수 마귀는 하만의 계락을 앞세워 거룩한 백성을 수산 성에서 사로잡으려 합니다. 전쟁의 공포와 살인의 광기로 의인들을 압제하려 달려듭니다. 테러와 폭력, 무기와 약취, 노략과 속임수, 음란과 패륜으로 가득한 거짓 영의 완악함이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포악한 짐승처럼 무자비한 칼을 휘두릅니다.

오, 주여! 새 힘을 일으키소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권세, 기도의 강력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불의하고 패역한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와 공의를 마땅히 전파할 용기를 허락하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한마음 되어 몸 된 그리스도 교회의 깃발을 높이 들어 구원의 등대를 비추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교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에베소서 3:14~16)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신 영광의 풍성함과 충만한 십자가의 은총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오, 주여! 쇠락하고 무너져 가는 교회 위에 자비를 베푸소서. 모세의 자리에 앉기만 즐거워하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외면하는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진실한 믿음과 견고한 사랑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교제가 교회 안에 운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였으나 주님과 관계없는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mammon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함을 찾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수 사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요한 복음 17:26)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전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죽을 자들이 죽는 것도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본심을 생각합니다. 죄인들에게 사망과 재앙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인생들이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화목제물 어린 양 그리스도를 사망에게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악인이었을 때, 연약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 주여! 마귀의 종이었고 주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신비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 주옵소서. 공연히 나를 치고 욕하며 멸시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까닭과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증거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예배문

평신도주일 공동예배

집례자 : 장로 대표

[하나님께서로 모임]

- 전 주 반주자
- * 입 레 송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다함께
- * 예배로 부름과 기원 집례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린도후서 7:1)

우주 만물의 주재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온 세상이 청정한 잎사귀로 충만한 계절, 거룩한 주일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소에 올라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지체된 주의 자녀들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평신도주일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종소리로 성전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경배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다함께
- * 말씀교독 이사야 42장 (교독문 70번) 다함께
- * 삼위영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다함께
- 오늘의 기도 권사 대표
- 주님의 기도 다함께
- 기도 응답송 찬양대

[말씀의 선포]

- 성경봉독 (1) 구약의 말씀 : 사사기 6:11~16 집사 대표(여)
- (2) 신약의 말씀 : 에베소서 6:10~12 집사 대표(남)
- (3) 오늘의 말씀 : () 설교자

찬	양	찬양대
설	교	설교자

[감사와 응답]

합심기도	말은 이
------	------

(예배자료로 함께 제공된 주간 기도문의 요일별 주제와 개체 교회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

1. 세계의 전쟁과 폭력, 살인과 야만의 갈등을 고치소서 (남선교회 회장)
2.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감리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여선교회 회장)
3.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들을 일으키소서 (청장년선교회 회장)

신앙고백	다함께
찬 송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다함께
* 봉 헌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함께
* 봉헌기도	말은 이
평화의 인사	다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세상으로의 파송]

교회소식	집례자
* 찬 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다함께
* 파송의 말씀	다함께

집례자 : 주님의 거룩한 몸 된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회 중 :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 축 도	목 사
후 주	반주자

(* 표시한 곳은 일어선다)

1. 평신도주일 성수 방법

1) 평신도주간과 평신도주일 성수로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소명의식을 새롭게 인식하여 평신도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평신도 단체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우리 감리교회의 특별한 신앙실천운동입니다.

평신도주일 성수를 통하여 평신도들이 교회 행사의 실제적인 주관자가 되어 나누고 섬기는 신앙 실천으로 교회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금년 평신도주일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기도’를 통하여 웨슬리의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깨닫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과 섬김의 주간으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3) 방법

가. 평신도주일 1주 전 평신도주간(5.30~6.4)에는 자료집에 수록한 ‘묵상문’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주간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일-5.29-에 “평신도주간 기도문”을 전 교인에게 배부하여 기도주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 개체교회는 1개월 전에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각 기관 임원 연석회의를 열어 개체교회에 합당한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실천항목 선정 및 기관별 담당을 정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신앙, 실천을 강조하는 평신도주

일 성수의 의미를 2~3주 전부터 주보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합니다. 이렇게 평신도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있어야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다. 평신도주일·주간행사는 지방 사회평신도부 목적사업에 초점을 두되,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사회봉사 사업이나 평신도 중점 사업과 자료에 예시된 사업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실시하십시오.

4) 평신도주일헌금

개체교회에서 평신도주일을 성수하고 드린 헌금은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취합하여

- ① 90%는 지방 사회평신도부 목적사업, 지방 평신도 및 사회봉사 사업, 기타 지방 협력 사업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 ② 10%는 본부의 평신도운동 활성화 사업과 불우이웃돕기 및 평신도주일 기념사업에 사용하도록 감리회 본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주일헌금

송금계좌 : 국민은행 813001-04-014211

우리은행 1005-201-023587

농 협 1277-17-001024 (예금주: 기독교대한감리회)

5)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첨부자료의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7월 31일까지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행사일지는 별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① 팩스 : 02-399-4350 ② e-mail : itd30@daum.net
③ 우편 : 03186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2. 평신도주일 및 주간 프로그램 예시

행사주관	프로그램	방 법
교회	평신도 기도주간 5/30(월) ~ 6/4(토)	· 평신도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는다. · 평신도주일 1주 전 주일에 전 교인에게 ‘주간 기도문’을 배부한다. · 요일별 기도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평신도주일 예배 6월 5일	· <평신도주일 자료집>에 수록한 예배문으로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린다. · 예배순서에 평신도들이 참여한다.
	미자립교회 방문	· 특별헌금이나 기금으로 한다.(목적사업) · 전도와 지역봉사를 겸하면 더욱 좋다. · 방문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본다.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	· 생활 속의 신앙 실천운동이 되게 한다.
	‘생명나눔운동’ 참여	· 장기기증 서약식을 갖는다. · 전교인이 헌혈에 참여한다.
	‘평신도 재능기부 운동’ 참여	· ‘평신도재능기부은행’(www.kmcgiftbank.or.kr)에 재능을 등록하거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회평신도국으로 보낸다. · 재능기부사업에 후원한다.
지방	‘착한소비 365’ 참여	· 사회적기업 등 착한공급자에게 판로와 시장개척에 도움을 주는 ‘착한소비 365운동’에 참여한다. · 착한기업들의 제품을 온라인쇼핑몰(www.더착한소비.com)에서 구매한다.
	평신도주일 연합예배	· 연합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을 찾고, 미리 준비하고 조직해야 한다. · 반드시 감리사와 교역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얻어야 한다. ·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을 다짐하는 순서를 갖는다. · 지방 감리교 희망봉사단 발대식을 같이 한다.
	평신도주일 교환예배	· 강단 교류, 외부강사 초빙, 열린 예배(연극, 워십 댄스 등) · 목적(특별) 헌금을 드린다. · 예배 순서에 참여한다.
	평신도상 수여	· 사회봉사상, 효자효부상 등 · 공정하게 선정하여 연합예배 시 시상한다. · 교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상패와 부상을 준비한다.
	착한 소비장터	· 지방의 감리교회가 연합하여 ‘착한소비장터’를 연다.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은 평신도의 다양한 재능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섬기고 함께 나누는 사랑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의 재능을 쓸 수 있도록 감리교회 평신도들의 재능을 ‘재능기부은행’(<http://kmcgiftbank.or.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능기부운동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즉 개인이 가진 전문지식과 경험, 은사 등을 섬김과 나눔으로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운동입니다.

● 재능기부운동의 목적

감리교회 150만 평신도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모아 인력뱅크를 구축하며, 이를 인적·영적·물적 자원을 조직화하고 국내외 선교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평신도 사역을 활성화함은 물론 감리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① 재능기부자들의 인력뱅크를 구축하여 선교와 봉사가 필요한 곳에 연결한다.
- ② 분야별로 조직화하여 평신도 리더를 세워 자발적인 헌신 봉사를 확산시킨다.
- ③ 맞춤형 선교사역과 연결하여 선교비전을 갖게 하며 평신도자원을 동력화하여 교회 부흥에 이바지한다.
- ④ 대사회적인 봉사활동에 감리교회 이름으로 참여하여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한다.

- ⑤ 국내·외 재능기부 시범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참여케 한다.

● 재능을 기부하면?

1. 재능기부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프로보노”로 활동하게 되며,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국내·외에 속한 교회, 이웃과 사회, 그리고 선교지역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 본부 사회평신도국은 재능기부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소식과 공지사항을 수시로 알리고, 또한 기부한 재능을 적시적소에서 활용하도록 기부자와 수요자를 매칭해 줍니다.

● 재능을 기부하려면?

1. 인터넷 : 재능기부은행 홈페이지(kmcgiftbank.or.kr)를 방문하여 회원 가입과 재능을 등록하면 됩니다.
2. 신청서 : 재능기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부 사회평신도국으로 보내 주십시오. 재능기부은행 회원으로 등록되어 재능기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재능기부를 받으려면?

홈페이지 : 재능기부은행 홈페이지(kmcgiftbank.or.kr)에 접속 한 후
‘재능기부자’ 클릭, ‘재능기부 받기’에 신청하시면
필요로 하는 재능기부자를 매칭해 드립니다.

● 재능기부 접수 방법

1. 홈페이지 :

재능기부은행 홈페이지(kmcgiftbank.or.kr) 접속 한 후
‘회원가입’ 및 ‘재능기부은행 등록하기’ 클릭

2. 신청서 접수방법 : itd30@daum.net

[신청서 다운로드 : 재능기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이메일 : itd30@daum.net • fax 접수 : 02-399-4350

• 우편접수 :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사회평신도국

3. 기타문의 : 02-399-4349

● 재능기부 활동 프로세스



평신도 재능기부은행 등록신청서 양식

지 원 자 성 명	한 글		영 문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결혼			
연 락 처	집				인터넷폰				
	휴대폰				E-mail				
주 소 (우편물 수령지)									
교회 활동	소 속 교 회	연회	직 분		최 종 학 령 (√표)	고졸()	초대졸()		
		지방	교 회 봉 사 부 서			대졸()	대학원()		
		교회				대학원 이상()			
					전 공				
지원 분야 [√표] (중복 가능)	의료	교육	건 축	IT/컴퓨터	기 술 분 야			행정	기타
					공업	농업	상업	사무행정	중보기도
	후 원			문화/예술/취미교실 과목					
	재정	물자	인력자원	연극영화	음악	미술	레크레이션	스포츠	
	* 상기 재능기부 항목 외에 기부 가능 재능분야를 쓰세요.								
	* 구체적인 내용을 쓰세요.								
지원분야 경력사항									
특기사항 (자격증)									

위와 같이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감리교회의 후원으로 빛을 찾은 사람들”

[2013년부터 전개된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지원사업/연수 및 2차수술 지원요청]



한국감리교회가 시각장애이들에게 빛을 선물합니다

“빛으로! 사랑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Church Social Responsibility)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감리교회

[2013~15년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비 및 소이암환아 치료비 지원에 참여한 감리교회(행사전행 날짜 순)]

이원호 목사	홍성국 목사	김정대 목사	이진호 목사	이영환 목사	김영철 목사	김영철 목사	김영철 목사	김영철 목사	김영철 목사
이원호 목사	홍성국 목사	김정대 목사	이진호 목사	이영환 목사	김영철 목사	김영철 목사	김영철 목사	김영철 목사	김영철 목사
이원호 목사	홍성국 목사	김정대 목사	이진호 목사	이영환 목사	김영철 목사	김영철 목사	김영철 목사	김영철 목사	김영철 목사

지원 소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세요”

기독교 사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세요”

부활절이 밝아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과 사랑의 빛이 온 세계를 밝히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세요”

시각장애이에게 빛을 주는 각막이식 수술비(1인 300만원)를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신원인 100-029-019610 (사)생명나눔운동본부 후원 1588-0682

2013년 감리교본부 정책사업으로 시작된 생명나눔운동

사회평신도국에서는 ‘(사)생명나눔사람들’과 함께 장기기증 및 헌혈캠페인, 시각장애인 각막치료 지원, 백혈병어린이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눔의 숭고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사랑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으키는 기적의 사역에 뜻있는 많은 교회와 감리회 평신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주요사업소개

1. '희망의 씨앗' 장기기증 및 헌혈 캠페인

- 사업내용 : 장기기증 인식개선 교육 및 희망등록
- 주요대상 : 국내 대학교 및 교계 조직



2013년 10월10일 배화여대 생명나눔 캠페인 장기기증서약

2.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치료비 지원 ‘기드온 300 용사’

- 사업내용 : 시각 장애인에 대한 각막 이식 수술비 지원
- 지원내용 : 300명의 검사비 및 수술비 최대 300만원
- 참여혜택 : 기드온용사 회원권부여, 후원행사참여, 임명장수여

모든 열매의 시작은 씨앗입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생애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순간, 우리는 가장 귀중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택입니다.

생명의 빛 각막(안구)기증으로 생명을 빛을 선물해주세요.
캠 페 인 사후 12시간 이내에 기증이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각막이식 수술비를 후원해주세요.
각막이식 수술 시 수술비 전액(1인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회계획을 수립하실 때 생명나눔을 기억해 주세요.
생명나눔운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봉사단국 정책사업으로 사순절 및 부활절
창립기념주일 등 특별한 때에 의미를 더해 함께 전개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및 서약예배, 수술비 후원 및 지원관련 문의
생명나눔운동사무소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 Tel. 010-3899-0126

생명나눔 운동
T. 1588-0692

장기기증(희망등록)과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캠페인은
(사)생명나눔운동본부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함께 진행 합니다.



‘기드온 300용사’ 임명식(2016.4.10.)
파주지방 봉일천교회(담임 안지호 목사)

3. 소아암 환우 치료지원 ‘만사형통’ 캠페인

- 사업내용 : 백혈병 등 희귀난치성질환 환아 치료비 지원, 장거리 통원치료 가족을 위한 무료 쉼터 운영
-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의 소아암 및 난치성 혈액질환 환아
- 지원내용 : 300만원 ~1,000만원
- 지원방법 : 일시지원 또는 분할지원 (매월 30~50만원)

만사형통 캠페인

캠페인 개요	▪ 정기 후원회원 10,004명 모집 전개
캠페인 내용	▪ 나눔활동 전개를 통한 장기이식 및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 백혈병 소아암 및 난치성 혈액질환 어린이 가족을 위한 힐링센터 운영

만사형통 캠페인은..

만사형통 캠페인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나눔 캠페인입니다. 빗돌 할랄 때 때때로 그림자의 존재를 잊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얘기치 못한 불행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생명나눔은사람들에서는 만사형통 캠페인 전개를 통해, 장기이식과 백혈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의 동행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희망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우리가 부린 희망의 씨앗이 고귀한 생명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원 해 주세요.





모든 열매의 시작은 씨앗입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생애 마지막 순간, 우리는 나눌 수 없었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택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1588-0692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은 숭고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삶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감리고 묵회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헌혈, 장기기증 희망등록, 각막이식 수술비 및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지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3 (온수동 35-13) 3F | Tel. 1588-0692 | Fax. 02-2618-7179 | Homepage <http://KALS.or.kr>

한국 감리교회는 지역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감리교인들의 삶 역시 대한민국 경제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는 개체교회가 소속된 지역의 사회·경제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개체교회의 지역사회 나눔·봉사활동’으로 인한 교회 인지도 상승 및 불신자 전도 여부를 넘어, 이제는 교회와 지역사회의 좋은 관계 맺기에 신경 쓸 때입니다.

감리교회의 지역사회를 향한 낮고 겸손한 사회·경제 차원의 섬김을 시작할 때,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감리교회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는 지속 가능한 감리교회 경쟁력이자 존 웨슬리의 본을 따르는 성화운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리교회 착한소비 3·6·5 운동’은 개체교회와 성도들의 사회·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를 살리고,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리교회 주관 마을축제 현장



착한소비 장터에 참가한 탈북민청년 사업자

■ 착한소비란?

단 하나의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생산과정이나 이익금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기업의 생산품을 구입하거나, 혹은 제품 자체에 친환경, 공정

무역 등의 윤리적 가치를 담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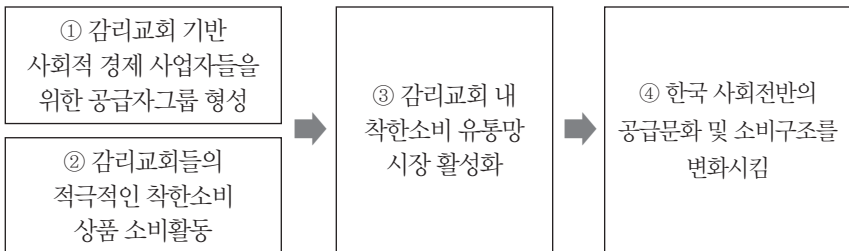
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신앙인이자 동시에 소비자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책임 있는 소비를 해야 할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경상지출 비용 중 일부가 착한소비로 전환될 경우,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골목상권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전반에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1. 감리교인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감리교인(착한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착한제품 구매는 다음의 경제적 효과로 연결됩니다.

- 1단계 : 착한공급자들의 매출 증가와 기업 안정화에 기여
- 2단계 : 지속적인 구매로 인해 사회 내에 건강한 공급자-소비자 관계 형성
- 3단계 : 한국 경제의 시장구조 및 소비문화의 거시적 변화
- 4단계 : 감리교회의 지역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고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와 영향력 증대
- 5단계 : 해외선교지의 사회적경제사업 활성화에 촉매제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

2. 감리교회로부터 일반시장까지



■ 착한소비 3·6·5 운동체계

1. 존 웨슬리의 경제 3원칙

1) 열심히 벌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라는 말이 아니라, 건전한 직업과 근면한 노동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원들을 이용하여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삶.

2)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남는 것을 사치나 방종, 향락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늘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가난한 이웃을 위해 저축하는 삶.

3)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 주어라.

열심히 벌고 저축하는 것은 열심히 나눠 주기 위함으로,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기부하는 나눔도 훌륭하지만, 분명한 방향성에 따라 실천되는 윤리적·가치 지향적 착한소비는 또 다른 나눔의 방식.

2. 착한소비 실천을 위한 6가지 체크리스트

- 1)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섬김 차원에서,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및 지역발전(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에 공헌하기 위한 나눔활동을 실천합니다.
- 2) 교회 차원에서, 연 1회 이상 성도들에게 기독교 경제윤리관, 교회중심의 사회적 경제(사회복지, 지역재생, 기업 활동 등), 성경적 착한소비에 관해 교육 활동을 합니다.
- 3) 우리 교회 총 지출의 1/10에 해당하는 규모를 “착한소비 3·6·5 예산”으로 편성하여, 정기/비정기적으로 착한공급자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 4) 연 1회 이상, 지역주민들을 섬기는 마을축제 혹은 바자회(장터)를 열어,

이웃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을 조건 없이 섬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 5) 성도 개인의 차원에서, 월수입의 5%를 구별하여 '착한소비 가계부와 통장'을 만들어 이용하여, 가정 내 생필품과 식품 구입 시 착한소비를 실천합니다.
- 6) 지역 내 비영리단체(NGO) 가운데 '차세대', '탈북민과 통일', '사회적경제'를 위해 애쓰는 한 곳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후원(재정, 공간, 일손, 재능 등)합니다.

3. 지역사회를 섬기는 착한교회 5대 조건

- 1) 교회와 성도들의 지역사회 필요에 대한 분명한 인식
- 2)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 3) 영적 사명의식을 가진 자들의 강력한 섬김과 실천
- 4)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 있는 소비 활동
- 5) 사회복지 및 지역재생을 위한 이웃 교회들의 연대

■ 감리교회 착한소비 3·6·5 운동 참여 방법

1. 착한소비 교육세미나 진행

- 교회별로 착한소비 헌신예배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성도들을 교육함.
 - ※ 감리회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전문 강사 지원 가능
- 착한소비 테마를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 가능함.
- 교회 내 노인대학, 청년교회 프로그램, 청소년교육 등 세대별 특성화교육 시행.

2. 온라인쇼핑몰 “THE착한소비” 이용

- 감리교회 사회적경제 공급자 및 범기독교 공공시장인 “THE착한소비” 쇼핑몰을 이용함.
- 인터넷 주소 : www.더착한소비.com (회원가입 필수)



“THE착한소비” 홈페이지

3. 교회별 “3·6·5장터” 유치

- 교회가 마을바자회를 개최하여 소속 지역사회에 착한소비 상품을 소개함.
- 연락처 : 이찬욱 팀장 (010-8911-5135)

■ 교회별 쌀트리 운동 전개

전국 감리교회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적 신뢰 회복과 선한 영향력 전달이라는 이중의 목적을 달성하는 “쌀트리 운동”입니다. 뜻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쌀트리 운동은?

- ① 교회절기와 행사 시, 교회 예산을 쌀 나눔에 활용
- ② 성도들의 뜨거운 참여로 교회에서 가정마다 10kg/20kg 한 포씩 헌물하여 지역사회에 기증함
- ③ 쌀 나눔 시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과와 진행하여 공신력을 얻고 선한 영향력을 극대화 함

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리



효성중앙교회에서 만든 쌀 트리

3. 행정사항

- ① 쌀트리에 기증되는 쌀은 쌀눈백미로 사용해 주십시오.
- ② 쌀트리 나눔 행사에 기여하는 교회의 언론홍보를 도와드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선언문

기독교대한감리회 150만 감리교인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희망을 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약속한다.

1.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경건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받들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3.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4.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자연과 생명체를 사랑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환경보호에 헌신한다.
6.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7.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1. 현수막 견본

2016년도 주제 :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

제38회

평 신 도 주 일

기간 : 2016. 5.30 ~ 6. 5

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주최 : ○○연회 ○○지방 ○○교회

2. 현금봉투 견본

제 38회

평신도주일 현금

2016년 6월 5일

-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하여
- 지방사회평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	교회
봉헌액		
이 름		

3. 포스터 (평신도주일)

 제38회

평신도주일

2016. 6. 5

평신도 기도주간
5.30(월) ~ 6.4(토)

5.30(월) 영혼 구원
5.31(화) 치유
6. 1(수) 영적 승리
6. 2(목) 사회 성화
6. 3(금) 거룩한 교회
6. 4(토) 원수 사랑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

■ 주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 주최 지방 사회평신도부

◆ 캘리그라피 재능기부 : 청한재이 임동규

4.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서

수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제목 : 2016년 제38회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서

1. 성수교회 현황

교회명	헌금봉헌액	비 고	교회명	헌금봉헌액	비 고
			합 계		

■ 지방 교회 수 : _____교회 ■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린 교회 수 : _____교회

2. 지방 및 개체교회 평신도주일 주요 행사

♥ 평신도주일헌금송금계좌 : 국민은행 813001-04-014211

(예금주:기독교대한감리회) 우리은행 1005-201-023587

농 협 1277-17-001024

_____연회 _____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_____(인)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발 행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발행일 2016년 4월 22일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 02-399-4346~8 Fax.399-4350

비매품

.....